



절편녹용 수입 강경대응 분위기 확산

- 화난 양육인, “실력행사 통해 뉴 절편녹용 수입 요구 봉쇄하자” -

양육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잇을만하면 한번씩 터져나오는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 요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지난 96년부터 해마다 반복되어 온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절편녹용 수입 요구가 올해 한·뉴 경제 공동위,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의 내한 등으로 다시 한번 쟁점화됨에 따라 국내 양육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동시에 강경대응으로 저지하지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양육인은 “현재 뉴질랜드는 국내 녹용 시장의 60%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 녹용 수출 최혜국임에도 불구하고 절편녹용 수입을 요청하는 것은 국내 양육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도발적 처사”라며 “국내 경기 침체로 가뜰이나 어려운 한국 양육인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뉴질랜드 처사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충청도에서 양육업을 시행하는 한 양육인은 “범 양육인 결의대회 날 사슴을 신고 서울로 오겠다”고 밝히고 “각 도별로 사슴을 한 마리씩 신고 결의대회 날 집결하자”

며 도심지 사슴 방사를 통해서라도 국내 양육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버리고 있다. 본회 K지회장은 “결의대회 날까만 결정되면 지역 양육인이 모두 집회장소로 집결될 수 있도록 이미 의견이 모아졌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문제로 지역 양육인의 대뉴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양육인들의 의견이 강경대응 쪽으로 치달고 있는 이유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이 국내 양육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 양육인의 지속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절편녹용 수입 문제를 들고나오는 뉴질랜드의 처사가 국내 양육인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가 보낸 항의서한의 뉴질랜드 반박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 WTO(국제무역기구)를 앞세운 공격적인 수입 의도도 국내 양육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된 「뉴질랜드양육위원회」는 농장주, 가공업체 대



▲ 양록인들 사이에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에 대한 강경대응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호주산 생수수입에 반대하는 한우협회의 쫓기대회 장면.

표들로 구성돼 정부차원의 막강한 로비를 우리 정부에 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히고 “WTO 정신을 위배하는 뉴질랜드가 오히려 WTO를 운운하며 절편녹용 수입을 강권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양록인들의 강경대응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비단 뉴질랜드의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양록 40여년 동안 변변한 정책 지원도 해 주지 않은 정부가 뉴질랜드 녹용 수입 허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경대응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를 한 몫 거들고 있다.

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변한 정책 지원 없이 오로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양

록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굴욕적 외교”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20일 뉴질랜드 대사가 본회에 보내온 반박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뉴질랜드는 절편녹용 수입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본회는 다가오는 8월23일을 전후로 서울에서 대규모 범 양록인 결의대회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한 양록농협 및 사슴연합회 등 각종 양록 단체들도 본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양록인 및 양록 단체들의 여론이 초강경 분위기로 무르익어감에 따라 뉴질랜드가 절편녹용 수입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국내 양록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양록**